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ILTON THE MIGHTY

가제 : 위대한 밀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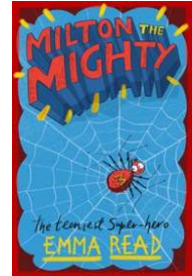
저자 : Emma Read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9년 6월 6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pre-empt로 네덜란드 판권 계약

* 2017 바스 아동 소설 상(Bath Children's Novel Award) 결승 진출 작

거미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 크기도 색깔도 모습이 저마다 다른 거미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알면 더 놀랄 지도 모른다. 눈이 침침한 사람은 건포도로 착각할 만큼 조그맣고, 다리가 길지도 않고, 인간들이 싫어하는 덩수룩한 털도 없는 꼬마 거미 밀튼은 같이 사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거미만 보면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최대한 조용히, 숨죽여서 같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눈 앞에 나타난 것만으로 난리를 칠까? 글자도 읽을 줄 알고 눈치도 빠른 영리한 거미 밀튼은 곧 인간들의 이 거부감이 소셜 미디어라는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퍼진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해충 박멸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 곤충들을 엄청나게 위험한 해충으로 둔갑시킨 허위 자료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다! 가뜩이나 밀튼처럼 잘 보이지도 않는 거미만 봐도 고향을 질러대는 집주인 아저씨까지 그런 광고에 현혹되어 '버그 킬'이라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업체의 서비스를 받기로 하자, 밀튼과 친구들은 큰 위기에 처한다. 다른 집으로 간다 한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 짐작한 똑똑한 밀튼은 색다른 묘안을 떠올린다. 집주인 아저씨와 달리 거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해롭지 않다는 것도 잘 아는 아저씨의 딸, 조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신문 한 쪽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큼직한 제목 아래 자신과 꼭 닮은 거미 사진이 뜬 것을 본 순간, 밀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살인 거미가 판을 친다'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적힌 기사에는 과부 거미는 극도로 위험한 독거미이며 현재 영국 전역에 퍼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기사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간 동영상도 언급되어 있었는데, 보나마나 버그 킬이 직접 제작했거나 협찬한 비슷한 내용의 경고성 기사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밀튼은 유일한 친구들이자 가장 친한 친구들인 랄프와 오드리에게 억울함을 토로한다. 과부 거미는 독거미가 맞지만, 밀튼은 '가짜 과부 거미'라는 어엿한 공식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무시무시한 거미와 생김새만 닮았을 뿐 독은 한 방울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에 그렇게 큼지막하게 실린 사진은, 밀튼도 처음 보고 놀랄 정도로 자신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집주인 아저씨가 조금 전 밀튼을 발견하고는 온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제자리에 서서 고향을 지르던 모습도 떠올랐다. “바로 저 녀석이야!”라는 외침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저씨도 신문을 본 것이 분명했다. 사실 랄프만 하더라도 인간들이 무서운 거미의 모습으로 다들 떠올리는, 다리와 몸에 온통 털이 수북하고 덩치도 훨씬 커서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하지만, 밀튼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니었다. 당장 짐 싸서 집을 비우자고 난리인 주인 아저씨의 반응을 보면서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한 밀튼은 우아하고 기다란 다리만큼 침착한 친구 오드리, 그리고 밀튼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주는 랄프의 도움을 받아 이 집에서 인간들과 함께 평온하게, 오래 살기 위한 작전을 준비한다. 무엇보다 거미와 해충 박멸에 관한 인간들의 오해부터 풀어야 했다.

조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밀튼은 우선 조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다. 사실 조는 바스 지역에서 ‘수석 거미 구조대원’으로 활동할 만큼 거미를 무척 좋아하고, 생김새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온 열혈 운동가였다. 아빠가 알면 당장 그만두게 할까 드러내지 못했을 뿐, 조는 거미가 얼마나 영리하고 아름다운 동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조에게 먼저 다가간 밀튼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활용하여 조가 가진 책에서 알파벳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침내 조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공한다. 밀튼의 걱정과 억울함을 다 이해한 조는 더 적극적으로 아빠를 설득할 방법을 고민한다. 하필 아빠가 최근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펠리시티라는 아줌마도 곤충은 다 해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계속 아빠를 부추겨서 ‘버그 킬’ 업체를 불러온 집안에 살충제가 뿌려질 상황이 되자, 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아빠가 평소에 늘 강조하던 것,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거미를 구하는 일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버그 킬’ 같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가 해충 뿐만 아니라 멀쩡한 다른 생물까지 몽땅 죽일 수 있고, 독한 화학물질이 집안과 환경에 오래 남아 결국은 사람의 건강도 해친다는 사실을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는 과장된 해충 박멸 업체들의 광고에 맞설 ‘거미는 위험하지 않아요’ 캠페인을 소셜 미디어에서 벌이기로 마음 먹는다. 밀튼처럼 어쩌다 집안에 나타날 수 있지만 생활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거미와 곤충에 관한 정보도 함께 알리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벌레나 곤충을 싹 다 없애는 것은 절대 현명한 방법이 아님을 알리기로 한 조의 해시대그 운동은 점점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고, 마침내 거미 공포증에 시달리던 아빠까지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성공한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기획하고 머리를 맞대 의논하는 밀튼과 조, 다른 거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불어 인간의 어리석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유익한 정보도 듬뿍 담긴 이야기다.

<저자 소개>

엠마 리드(Emma Read)는 생물학자로, 현재는 아동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A MOON GIRL STOLE MY FRIEND

가제 : 달에서 온 전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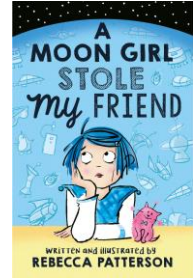
저자 : Rebecca Patterson

출판사: Andersen Press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저자의 솜씨 좋은 일러스트와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 관한 날카로운 이해가 어우러져, 아이들이 큰 매력을 느낄 만한 훌륭한 책” - 「가디언」

* “학교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SF 요소를 가미한 재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 「Scotsman」

아침마다 부모님이 소형 우주선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혹은 학교 바로 앞에서 ‘떨어뜨려’ 주고)집에는 매일 16시간씩 충전해줘야 하는 로봇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시대, 2099년을 배경으로 한 상상력 넘치는 소설이 완성됐다.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작가의 상상력에 계속 감탄하게 될 만큼 독특하고 신기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아 깊이 공감하게 되는 이 사랑스러운 이야기에서 주인공 릴라는 친구 문제로 짧은 생애 최악의 위기에 처한다. 평생 서로의 단짝 친구였고 앞으로도 절대 변치 않을 줄 알았던 블랑카가 새로 온 희한한 전학생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릴라를 본체만체 하자 크게 실망한 릴라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현실적인 이야기와 사춘기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만한 사건들 사이사이에 유쾌한 미래 세상의 모습이 등장하여 조금도 지루할 틈 없이 읽게 되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블랑카의 첫 배신은 수 개월 전부터 같이 고대했던 생일 파티였기에 릴라의 상실감과 분노는 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릴라와 함께 개학 직후인 자신의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밤새 이야기했던 블랑카는 릴라를 아예 초대조차 하지 않고도 그 사실을 당일까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고급 주택단지에서 사는 할머니 덕에서 딱 6명만 초대해 특별한 파티를 열 계획이라고 털어 놓을 때만 해도, 블랑카는 릴라에게 ‘너 빼고 네 자리를 누구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고민했었다. 그런데 릴라를 초대 명단에서 싹 빼버리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악수를 하면 초대 받은 사람의 손바닥에 파티 장소며 시각 등이 반짝이는 글씨로 쓰는 ‘손바닥 초청장’을 릴라가 보는 앞에서 다른 친구들 5명에게 전달한 것이다! 릴라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고작 3주 전에 전학 온 페트라가 그 5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달에서 온 페트라는 전교생 전체를 통틀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길고 윤기가 찰찰 흐르는 멋진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모델처럼 멋진 몸매로 등장해서 처음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달에서 지구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 다들 페트라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전학 오자마자 이집 저 집에 얼마나 초대를 받기도 했다. 그런 페트라가 ‘전학생이라 외로울까 걱정돼서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블랑카의 변명은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이었다. 그저 인기 많은 친구와 친해지고 싶고, 블랑카에

비하면 딱히 사교적이지도 않고 조용한 편인 릴라와 노는 것이 재미 없다는 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큰 충격을 받은 릴라는 페트라가 전학 온 첫 날부터 자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안 좋은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름만 들어도 지구인이려면 다들 아는 유명인과 가족들이 친분도 깊고, 어릴 때부터 모델로 활동했다는 페트라 이야기는 곧 모두를 매료시켰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들 철썩 같이 믿었다. 그러니 릴라를 별 이유 없이 비웃고 멀리하는 페트라 태도는 그 동안 잘 지내던 아이들이 하나 같이 릴라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릴라가 이 우울한 변화에서 벗어나는 뒀 뜻밖의 계기가 찾아온다. 달콤한 맛이 일품인 하얀 눈이 내리는 운동장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어느 날, 절대 건너가면 안 되는 곳으로 정해진 학교의 높은 울타리 너머에서 누군가 던진 눈 덩어리를 발견한 것이다. 울타리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살고 있긴 한 건지를 두고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몰래 넘어가다 들키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에 아무리 궁금해도 확인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릴라는 누군가 손으로 꼭꼭 눌러서 만든 것이 분명한 눈 덩어리가 울타리 바깥에서 날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낸 순간, 릴라는 더 큰 조롱을 받고 만다. 페트라가 깔깔대고 비웃으며, 어디서 유치한 거짓말을 하느냐며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놀린 것이다. 하지만 속상한 마음도 릴라의 호기심을 누르지 못했다. 울창하게 우거진 잡초와 나무를 건너 울타리 바로 앞까지 다가간 릴라는 울타리 위에 올라가 마침내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한다. 멈춰버린 풍력 발전기와 다 깨진 지붕, 역사 책에서나 볼 법한 굴뚝 너머에는 깨진 유리가 전면에 붙어 있는 거대한 유리의 집이 서 있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진짜 유리였다. ‘옛날 동네’의 특징으로 배운 과거의 마을 풍경이 고스란히 재현된 듯한 그곳에는 전기가 아닌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고양이도 있었다. 흠린 듯이 낯선 동네의 길을 따라 걸어가던 릴라는 왠 괴팍한 아줌마와 마주친다.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정원에 불쑥 나타났냐고 고함치는 아줌마의 이름은 베티, 두 사람이 특별한 친구가 된 순간이었다. 한 때 유명한 우주 비행사였고 2078년에 인류 최초로 화성에 두 발을 디딘 역사적인 비행사 중 한 명이었던 베티는 이후 찾아온 떠들썩한 유명세에 신물이 나서 숨어 살게 되었다고 털어 놓는다. 곧 릴라의 좋은 친구이자 상담자가 된 베티는 친구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릴라에게 새로 만들고 있는 우주선에 올라 먼 상공에서 지구와 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하고, 릴라는 움츠렸던 마음을 열고 못된 친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는다. 번드르르한 거짓말로 모두의 마음을 훔친 페트라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도 곧 다가온다.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 받는 것,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을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재미 있고 독특한 배경에서 풀어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베카 패터슨(Rebecca Patterson)은 대학에서 패션 공부를 마치고 캠브리지 예술학교에서 아동 도서 일러스트레이션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12년에 『My Big Shouting Day』으로 로날드 달 퍼니 상(Roald Dahl Funny Prize)을 수상했다.